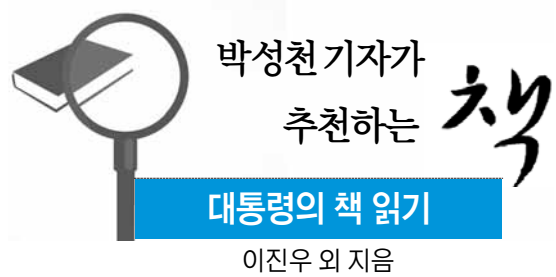


우리는 왜 대통령에 이 책을 권하는가



대통령과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할 '명상록' '군주론' '아내의 가뭄' 등 26명의 열린 지성이 추천한 26권



오바마 대통령은 2017년 1월 퇴임 직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8년간 백악관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법은 책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이 급히 돌아가고 술한 정보가 난무할 때 독서는 속도를 늦추고, 관점을 갖고,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2009년 1월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오바마의 독서열에 대해 이렇게 기사화하기도 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감을 주는 오바마의 웅변술이 만들어지는 데 많은 것이 기여했다. 하지만 '언어의 마술'에 관한 이해와 독어야말로 그가 미국인들과 자신의 생각을 소통하는 보기 드문 능력뿐 아니라 오바마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지식과 정보는 지도자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 가운데 가장 지속적이고 근본적이며 체계적으로 영향을 좌우하는 것은 책이다. 지난 1년간 사람들은 지도자의 불통과 오만 그리고 독단이 얼마나 많은 위험한 지를 경험했다. 박근



해 정권의 실패는 인문학적 사유의 부재와 무지 그리고 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전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때마침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라는 진지한 물음을 바탕으로 26명의 열린 지성이 대통령과 함께 읽고 토론할 만한 책 26권을 추천했다.

포스트 인문사회학부 이진우 석좌교수를 비롯 서민 단국대 기생중학과 교수, 안대희 성운관대 한문학과 교수 등 26명이 '대통령의 책 읽기'를 펴냈다. '대통령에게 권하고 시민이 함께 읽는 책 읽기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선정된 책들은 대통령과 시민이 읽고 토론할 만한 도서들이다. 저자들은 물리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 문화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대한 지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역사와 현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비전을 지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철학자 이진우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추천했다. 그는 "정치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강한 영혼"이라며 "내면의 초연함과 강한 영혼을 길러

준다'는 면에서 이 책을 선정했다.

역사학자 임지현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추천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동아시아의 기억 정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정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사회학자 오찬호는 "가난을 설명하는 데 가난 그 자체만큼 설명력을 가진 변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한 책 '사당동 더하기 25'를 권했고, 정치학자 박명림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거론하며 지도자의 '운명'은 등극의 순간 '자질'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내의 가뭄'을 읽어달라고 한 기생중학자 서민은 하찮게만 여겨왔던 가사노동 해결에 사회 발전의 답이 숨어 있다고 직언했다. 또한 허먼 데일리의 '성장을 넘어서'를 집어든 흥기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성장의 신화에서 공존의 경제로 나아가려는 해법을 제시했다.

목수정 작가는 최진석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추천하며 "인문적 시선의 높이가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옥연 서강대 교수는 이용후생의 정신으로 나라 안팎을 살릴 때라며 '열하일기'를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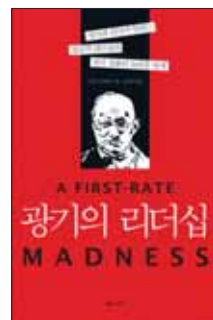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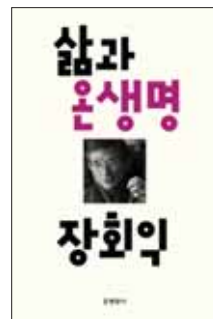
기획위원들은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상기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책과 사람이 세상을 만든다"고 입을 모았다.

<휴머니스트·1만8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문학박사·전남대 강사, 저서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



C. J. 북스 지음 최필원 옮김 '오픈 시즌'

전세계 27개국에서 출간됐으며 미국에서 1000만 부가 팔린 C. J. 북스의 장편소설 '오픈 시즌'이 나왔다. 매커버티상, 김수상, 배리상, 앤서니상 신인상을 석권할 만큼 찬사를 받았던 책은 "특정 동물에 한해 공식적으로 사냥이 허용되는 기간"에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다.

소설은 금렵과 수렵 관련 사항을 감시하는 와이오밍 주의 수렵감시관 조피킷이 주민의 밀렵 현장을 적발하면서 시작된다. 주민은 눈감고 넘어가주기를 바라지만 조피킷은 곧이곧대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며칠 뒤 조피킷의 집 뒤뜰에서 그 주민이 시체로 발견되면서 마을은 일대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사건이 대중대중 수사된다는 느낌을 받은 조피킷은 뭔가 도사리고 있다는 직감을 받게 되고 내막을 캐기 시작한다.

주인공 조피킷이 막닥뜨린 주요 갈등은 '멸종위기종' 때문에 발생한다. 보호지를 개발해 이권을 챙기려는 세력과 '그것은 옳지 않다'며 막으려는 조피킷이 쫓고 쫓기는 과정을 그린다. 현지에서는 자연을 테마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소설을 '에코스릴러'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작가는 고향 와이오밍 주의 대자연의 작품 속에 녹여내고, 시종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사회적 이슈를 병렬한 시각으로 다룬다. 속도감 넘치는 내러티브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전개되며 산과 계곡, 평원 같은 대형 스케일의 공간은 독자들로 하여금 적막감을 배가시킨다. 저자는 끔찍한 살상이나 잔혹한 범죄 없이도 짜릿한 재미를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치·1만35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덕영 '루터와 종교개혁'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다. 지금껏 종교개혁 관련 책들은 대부분 신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가운데서도 신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김덕영 박사가 펴낸 '루터와 종교개혁'은 '문화의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종교개혁이 근대의 가장 중요한 시원 가운데 하나임을 논증함으로써 그동안 신학적,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왔던 종교개혁을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루터신학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종교와 사회의 관계라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또한 루터에 의해 촉발된 종교개혁이 서양 세계 전체에 '근대'를 어떻게 각인했는지 사회과학자의 시각으로 조명한다.

루터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분산돼 진행되던 근대적 운동을 종교개혁을 통해 비교적 통일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 개인화, 탈주술화, 세속화, 분화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근대의 중요한 사회학적 지표들이 루터에 의해 달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종교개혁과 더불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뜻이다.

저자는 "신학과 사회학이 그리고 역사학과 철학이 교차하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나의 좁은 지적 지평을 넓히고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며 다른 연구를 구상하는 등 뜻하지 않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길·2만8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조한 '플랫폼 전쟁'

플랫폼·미디어·콘텐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 '플랫폼 전쟁'은 넷플릭스와 아마존을 위시한 미국의 강자들과 텐센트, 아이치이를 포함한 중국의 신흥 기업의 세계 시장 점령 전략을 파헤치고 대응 전략을 전달한다. 현재 한국의 최우선 과제인 플랫폼 전쟁에 뛰어드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전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디어 플랫폼 분야의 인플루언서인 저자 김조한은 3부에 걸쳐 각국의 전략과 기업들의 전술을 소개한다.

1부는 '미국의 플랫폼 파워'다.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로 대표되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전략과 향후 전망을 담고 있다. 미국 기업과 경쟁 중이거나 혹은 제후를 맺으려는 한국 기업에게 중대한 인사이트가 가득하다. 2부는 중국의 플랫폼 굴기다. 한중 사드(THAAD) 갈등이 해소되면 한류로 다시금 중국 대륙을 공략할 수 있으리라 믿는 언론과 기업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을 담았다. 3부에서는 한국의 미래 전략을 소개한다. 한국 플랫폼·미디어·콘텐츠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으로서 동남아시아를 소개하고 제휴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현재의 5개 기업을 분석해 설명한다. 뷰티U, 아이플릭스IFFLIX, 혹HOOQ, 드라마피버DRAMAFAEVER, 비키VIKI의 기업 자료 분석을 전하는 것도 이 책이 최첨단. 향후 한국 플랫폼·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지적재산권) 투자와 OTT 스크린 쿼터 그리고 디지털 라이선스 로커 전략 역시 한국이 플랫폼 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전략을 담았다. <매디치·1만6000원>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